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

- 16·17세기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List of Directors of Sosoo-Seowon :
Mainly for the 16·17 Century

송 정 숙(Song, Jung-Sook)**

◁ 목 차 ▷

1. 서 론	3.1 원장의 재임기간
1.1 연구목적	3.2 원장의 출신배경
1.2 연구대상과 방법	3.3 원장의 이력
2. 「소수서원 임사록」의 서지적 형태	4. 결 론
3. 「소수서원 임사록」의 분석	<참고문헌>

< 초 록 >

조선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원장의 명단을 기록한 명부인 「소수서원 임사록」 제1권을 분석하여 소수서원 원장의 평균 재임기간과 그 추이, 거주지와 성씨·관향을 통해 본 원장의 출신배경, 원장의 소수서원 수학 비율과 생원진사시와 문과 급제 비율 등을 소수서원 입원생과 비교·분석하여 소수서원 원장의 특성과 시대별 추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1) 소수서원 원장의 재임기간을 보면, 1542년부터 1599년까지는 초대 원장 김종문을 제외하면 원장이 평균 2~3년간씩 재임하였으나, 1600년부터 1679년까지와 1700년 이후는 1년 내외(8개월~13개월) 재임하였고, 1680년~1699년까지는 평균 5개월 정도 재임하였다. 서원에 입원생이 많은 때에는 원장의 재임기간이 길었고, 학생이 거의 없을 때에는 재임기간이 짧았다. 즉 서원이 교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때에는 서원 운영이 안정되어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파악된다.

2) 소수서원 원장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경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풍기·순흥·영천(榮川) 즉 현재의 영주 출신이 87%를 차지함은 소수서원의 운영을 주도한 세력이 서원 인근의 영주 사림임을 입증하고 있다.

3) 소수서원 원장의 성씨와 관향을 분석한 결과, 소수서원 원장을 배출한 성씨는 18개로 황 - 박 - 안 · 김의 순이다. 관향을 보면 창원황씨가 원장을 15명을 배출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 이 연구는 200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는 2006년 8월 서지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접수일: 2007년 11월 11일 최초심사일: 2007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20일

순흥안씨(10명), 무안박씨(9명)의 순이다.

4) 원장의 소수서원 출신 비율을 보니, 전체 107명 가운데 52명이 소수서원 출신으로 49%에 해당한다. 예상밖으로 소수서원 출신 비율이 적어 연도별 소수서원 원장의 비율을 살펴보니, 1620년대부터 소수서원 출신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1680년대부터는 비소수서원 출신이 전적으로 서원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650년대부터 1696년까지 47년 동안 소수서원 임원생이 9명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서원의 교학기능 쇠퇴와 관련이 깊다.

5) 원장의 과거사항을 분석한 결과 원장의 생원진사시 합격률은 44%, 문과 급제율은 12%로서 소수서원 임원생과 비교할 때 생원진사시 합격률은 12% 높았지만 문과 급제율은 1% 낮았다. 물론 사마시와 문과 급제여부로 학문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를 통해 볼 때 원장의 선입기준은 적어도 학문적 능력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이는 이즈음의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선입이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6) 소수서원 원장 가운데 퇴계 문하에서 수학여부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1명도 없었다. 소수서원 임원생 가운데는 이황 문하에서 수학한 학생이 735명 중 57명이었는데, 원장은 1명도 없다는 사실은 소수서원만의 독자성을 간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要語: 소수서원 임사록, 소수서원, 백운동서원, 이황, 주세붕, 김종문, 서원 원장, 원입, 서원의 인적 구성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first volume of the List of Directors of Sosoo-Seowon Academy(紹修書院) mainly for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Directors in terms of their backgrounds, including the residences, birthplaces, and family names, the age of being appointed to the Director, as well as passing the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and the length of holding offices in the Academ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Sosoo-Seowon Academy was established in Poonggee(豊基) by Chu Seboong(周世鵬) in 1543, and accredited by King Myungjong(明宗) with the request of Lee Hwang(李滉) in 1549.

A total of 181 Directors held offices in this Academy from 1542 to 1718, and on the average every director serves a year. Of the Directors, 93% came from Kyungsangbuk-Do Province(慶尙北道), and especially 87% were from Poonggee(豊基), Soonheung(順興), and YoungJoo(榮州). While the age of Directors ranged 30 to 70 years old, the largest group were in their 40s to 50s.

Out of 107 Directors, 47 passed the examination to enter Seonggyunkwan National College called *Sangwon-Jinsa-Si*(生員進士試), and 14 passed the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called *Moonkwa*(文科).

An analysis of their family names and ancestral homes evidences that of 18 family names, Hwang-Park-An and Kim, in the order of frequency,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

It is surprising to see that none of 107 Directors was Lee Hwang's pupil, which seems to suggest this Academy's independent position.

Key words: The President List of Sosoo-Seowon Academy(紹修書院 任事錄), Sosoo-Seowon Academy(紹修書院), Baekundong-Seowon Academy(白雲洞書院), Lee Hwang(李滉), Chu Seboong(周世鵬), the President of Sosoo-Seowon Academy(紹修書院 院長)

1. 서론

1.1 연구목적

문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해 생산하거나 수취한 기록으로서 삶의 진솔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당대나 후대에 史家의 사관에 의해 선별되고 해석되어 재구성한 편찬류나 저술류와는 질적으로 판이하다. 그 시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바로 그 시대인들이 생산해 놓은 문서류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서원에 대한 연구는 서원의 성립과 발전·폐단, 정치적 역할과 성향, 경제적 기반, 교육활동과 제도, 향촌사회에서 서원의 위상 등 정치·경제·사회·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서원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도 과거에는 실록 등의 연대기자료가 중심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조두록(組頭錄)」과 각종 문집,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원등록(書院騰錄), 서원지(書院誌), 서원일기(書院日記), 통문(通文) 등의 고문서가 연구에 이용되어 서원의 구체적인 활동양상이 밝혀지고 있다. 사립 교육기관으로 출발했지만 사액을 받은 서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가의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지닌 교육기관이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려면 서원의 인적 구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조선조 지식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서원 교육의 실상을 알려주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서원에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자료는 편찬류나 저술류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원천자료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인쇄나 출판 등 공간(公刊)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널리 유포되지 않았고, 아직 어떤 자료들이 현존하는지 서지통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연구의 자료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인적 요소인 교육자인 원임(院任)과

피교육자인 원생(院生)에 대한 연구를 보면, 윤희면의 “조선시대 서원 원임 연구”와 이수환의 “서원의 人的 構成과 운영: 院任·院生을 중심으로”, 그리고 송정숙의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 연구” 정도이다. 서원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 가운데 윤희면은 교육자, 이수환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해 전반적인 경향을 개관하였고, 송정숙은 피교육자를 집중 분석하였다. 하지만 서원을 운영한 원장을 집중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조 서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서원 생산 문서류 가운데 소수서원 경영자, 즉 소수서원 원장의 명단을 수록한 명부(名簿)인 「소수서원 임사록(紹修書院 任事錄)」에 등재된 원장의 전기사항을 분석하여 소수서원 원장은 한번 부임하면 대개 몇 년간 재임하였는지, 주로 어느 지역 출신이며, 어느 성씨가 많은지, 원장은 소수서원에서 수학한 사람인지, 그리고 과거시험 급제자들인지, 몇 살에 부임하였는지 등 이런 의문들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당시 소수서원 입원생의 명단인 「소수서원 입원록」의 분석 결과¹⁾와 비교를 통해 16·17세기 조선사회에서 서원 원장집단과 서원 학생집단의 동질성과 이질성도 밝혀보고자 한다.

1.2 연구대상과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조선시대 최초의 국가 지원 사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소수서원의 역대 원장의 명단을 필사한 정책고문서(成冊古文書)인 「소수서원 임사록(紹修書院 任事錄)」 제1권이다. 「소수서원 임사록」 제1권은 소수서원이 건립되던 1542년부터 1718년까지 172년 동안 재임하였던 소수서원 원장의 명단이 기록된 문서로서 현재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산하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소수서원 임사록」에 기재된 사항은 <干支, 姓名, 字, 科擧及第事項> 뿐이다. 이로써 파악이 가능한 것은 원장의 성명과 자, 재직기간과 과거사항뿐이

1)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분석: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書誌學會)』, 제 34집(2006. 9), 63-100.

다. 그런데 과거사항의 경우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소과인 생원시와 진사시의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司馬榜目)」과 대과인 문과의 합격자 명단인 「문과방목(文科榜目)」에서 과거 합격여부를 다시 확인할 것이다. 안구(安駒)나 안응일(安應一)처럼 <임사록>에 ‘生員’이라고 과거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마방목(司馬榜目)」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방목에 기재되어 있으나, 「소수서원 임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방목과 임사록 한 곳에만 등재되어 있어도 채택하였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었으나 이는 字와 원장의 재임연도 등을 참고하여 구분하였다. 방목을 통해 과거사항 이외에도 관향과 거주지, 가족관계 등도 파악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지만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수학한 원장은 소수서원 입원생의 명단인 소수서원 입원록 을 통해 어느 정도 전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수서원 입원록」에는 <입원연도와 자(字), 거주지>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장이 소수서원 출신이라도 입원록에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소수서원 출신이 아닌 인물의 경우 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성씨별 족보, 영주 영풍향토지(榮州榮豐鄉土誌), 「영주향교지(榮州鄉校誌)」 등 향토지를 통해서 파악할 것이다.²⁾ 이상과 같이 조사한 소수서원 원장의 전기사항을 토대로 원장의 재임기간, 출신배경, 이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당시 소수서원 입원생의 명단인 「소수서원 입원록」의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해 16·17세기 조선사회에서 서원 원장집단과 서원 학생집단의 동질성과 이질성도 밝혀보고자 한다.

2. 「소수서원 임사록」의 서지적 형태

「소수서원 임사록(紹修書院 任事錄)」은 소수서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장(院長), 유사(有司) 등 원임의 명단을 기록한 필사본으로 현재

2) 이런 방법을 통해 107명의 원장 가운데 관향, 거주지, 과거사항들 가운데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인물은 권정기, 이기복, 한명언, 황덕규, 황운서의 5명뿐이다.

영주의 소수서원 산하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소수서원 임사록」은 세로 39.6cm, 가로 25.4cm의 크기로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42년(중종 37)부터 1718년(숙종 44)까지의 원장과 감관(監官)을 기록한 「원임제명록(院任題名錄)」을 다시 옮겨 적은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책에는 원장과 감관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이 책은 원장만 옮겨 적고 감관을 적는 란은 있지만, 그 인명은 옮겨 적지 않고 빈 칸으로 남겨두고 있다. 또한 제목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박승륜(朴承倫)의 의(議) 앞에 제목을 첨가하였고, 본문의 첫 장에 나오는 연호인 가정(嘉靖) 앞에 ‘大明’의 두자를 추가하였으며, 본문에 있어서도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가감한 곳이 보인다.

기록의 형식은 계선의 밖 상단에 간지를 적고 성명, 자, 과거 급제사항 등을 적은 것은 원본과 같다. 그러나 본래의 책이 면당 12행씩 되어 있던 것을 10행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총 장수는 15장으로 늘었다.

표지는 ‘紹修書院任事錄 一’로 되어 있으며 내지의 우측하단에 ‘戊子謄書’라 쓰여 있고, 좌측 상단에 ‘任事錄 第一’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任事錄」이라는 제목으로 원임의 기록을 1828년(戊子)에 다시 정비했음을 알 수 있다.

첫 장은 ‘紹修書院任事錄 第一卷’으로 시작되며 원임(院任)을 기록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의(議)가 있는데, 1584년(宣祖 17)에 박승륜(朴承倫)이 썼다. 이어서 본문의 첫 행에는 ‘大明嘉靖二十一年壬寅’이라 되어 있고, 다음 행에 원장과 감관으로 구분하여 상하를 나누었다. 다음 행부터 인명을 기록하였는데, 계선의 밖 상단에 간지를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인명이 적혀 있지 않은 빈 칸도 있다.

권말에는 1754년(영조 30)에 쓴 황경(黃敬)의 의(議) 및 1828년(순조 28)에 쓴 서성열(徐成烈)의 의(議)가 있어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내력을 알려주고 있다. 즉, 「소수서원 임사록(紹修書院任事錄)」 제1권은 1542년(嘉靖 壬寅年, 中宗 37)에 시작하여 숙종 무술년(1718)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영조 갑술년(1754)에 수보하였으나 오래되고 낡아 훼손된 곳이 많아 무자년(1828)에 다시

적은 것이다.³⁾

3. 「소수서원 입사록」의 분석

유림의 영수로 일컬어지는 서원의 원장은 동주(洞主) 또는 산장(山長)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원의 대표자였다. 이 명칭은 중국 서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명한 학자가 산장, 동주로 모셔져 교육을 담당하던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원장은 서원 운영의 자문에 응하고 춘추제향에 대표로 참여하였다. <소수서원 원규(院規)>에 보면, 원장(院長) 1인과 원이(院貳) 1인을 두어 서원 일들을 주관하도록 하였다.⁴⁾ 이황이 작성한 <이산원규(伊山院規)>에 의하면, 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이 상유사(上有司), 하유사(下有司)만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황이 원장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원장은 교육을 전담하는 자리로 일세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말아야 하는데, 실제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이황의 생각은 경상도 지역의 서원 원규에 영향을 미쳐 원장 규정 없이 유사만을 규정하는 원규가 여러 서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안동의 <병산서원원규(屏山書院院規)>에 “상유사는 원중의 여러 일들을 주관하고, 하유사는 미포의 출납, 공궤(供饋)의 염산(斂散), 타작 등의 일들 주관한다. 모든 일을 반드시 원장에 아뢰고 시행한다.”고 한 것처럼 상, 하유사 이외에도 실제로 원장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서원의 원임 구성은 초기에는 원장-유사(有司)의 체제였으나, 점차 서원의 활동이 다양해지자 유사가 분화하여 원장 - 상유사(別有司, 齋有司) - 하유사(有司, 庫有司)의 삼층 구성이 일반화

3)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紹修書院 所藏資料 調査報告書 3) . 榮州市 · 紹修書院, 1998, 39-40.

4) 院貳에 대한 규정은 규모가 큰 서원에 부원장을 두어 원장을 보좌케 한 중국 서원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수서원은 규정만 그러할 뿐 실제 원이를 두지 않았으며, 다른 서원들도 마찬가지였다. 尹熙勉, “朝鮮時代 書院 院任 研究”, 『역사교육(역사교육연구회)』, 제54집(1993.12.), 42-43.

되어 갔다고 하겠다.⁵⁾

서원의 원장은 인격과 덕망 및 지체가 있는 인물 중에서 뽑았으며, 서원의 임원을 통괄하였다. 원장은 서원의 두 기능인 흥학(興學)과 향사(享祀)를 책임지는데, 자격은 지방의 유림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공사간에 표리가 엄정하며, 흉사(凶事)나 애사(哀事: 복을 입는 일)가 없는 경우에 추천하여 맡게 된다. 과거에는 원장이 서원에 기숙하며 원생들의 학업을 지도했다.

이즈음 서원에는 교육의 기능은 없어지고 향사의 기능만 남아 있으므로 소수서원의 경우는 원장의 선출은 당회(堂會)에서 추천하며, 원장의 임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장은 춘추향사를 주관하며, 초헌관이 된다.⁶⁾ 현재 도산서원의 경우는 전(前) 원장이 새 원장을 추천하여(체대) 유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다.⁷⁾

3.1 원장의 재임기간

「소수서원 임사록(紹修書院 任事錄)」은 소수서원이 건립되던 1542년부터 1718년까지 172년 동안 재임하였던 소수서원 원장의 명단을 수록한 명부(名簿)이다. 이 기간 동안 재임했던 원장은 181명이므로 평균적으로 거의 1년씩 재직하였다. 이 가운데 여러 차례 걸쳐 중임했던 원장을 제외하면 107명이 원장을 역임하였으므로 1인당 평균 1.69년, 즉 20개월 정도 역임한 셈이다. 원장의 재임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부임한 원장의 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5) 尹熙勉, 위의 논문, 43-44.

6) 소수서원 학예사 박석홍의 증언 2006.8.22.

7) 도산서원 별유사 이원대의 증언 2006.8.22.

<표 1> 원장의 재임기간

연도	소수서원 원장의 수(전체)	소수서원 입원생 수
1542-1549	1	85
1550-1559	2	119
1560-1569	4	99
1570-1579	4	69
1580-1589	3	77
1590-1599	4	24
1600-1609	12	61
1610-1619	10	78
1620-1629	16	61
1630-1639	9	40
1640-1649	11	12
1650-1659	13	5
1660-1669	12	0
1670-1679	10	4
1680-1689	22	0
1690-1699	22	1
1700-1709	15	-
1710-1718	11	
계	181	

1540년부터 1590년대까지는 매 10년 동안 부임한 원장의 수가 4명 이내이다. 이는 부임하여 최소 2-3년 동안은 재직함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1600년대부터 1670년대까지와 1700년대부터 1710년대까지는 매 10년 동안에 대개 10명 이상의 원장이 부임하였다. 이 시기는 한번 부임하면 평균적으로 7개월에서 1년 동안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680년대와 1690년대에는 10년 동안에 22명의 원장이 부임하였으니, 이 시기의 원장 1인당 재임기간은 평균 5-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원 운영에 두세 차례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원장의 재임기간을 중심으로 1542~1718년까지 소수서원의 발전과정을 3기로 나눌 수 있겠다. 제1기는 소수서원 창건에서 1599년까지, 제2기는 1600년~1679

년, 제3기는 1680년~1718년까지로 볼 수 있다. 제1기는 매 10년 동안 4명 이내의 원장이 부임했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서원 운영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2기에는 매 10년 동안 원장의 수가 10명대로 늘어나는데, 이 시기에 들어서는 1640년대부터 입원생의 수가 급감하여 1650년~1659년까지 매 10년 동안 5명 이내로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서원 교학기능에 위기가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전국적인 서원의 남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미 이때가 되면 경상도에 1649년까지 60개의 서원이 건립되었고, 전국적으로는 142개의 서원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서원은 재정의 열악과 함께 학생 모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서원의 교학기능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소수서원 입원생의 급감은 서원 운영이 비소수서원 출신자로 넘어감을 예고한다. 이런 위기와 관련하여 제3기인 1680년대가 되면 이미 소수서원 출신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원장이 자주 교체되었는데, 잦은 원장 교체는 서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소수서원 원장의 재임기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장이 자주 교체되지 않아 연임이나 중임이 많고 소수서원 출신자에 의해 운영될 때에는 학생의 수도 많아 서원의 교학기능이 활발한 때이고, 소수서원 입원생들의 수도 적고 원장이 자주 교체될 때에는 서원의 교학기능이 쇠퇴함을 알 수 있다.

소수서원의 경우 원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서원 원장의 임기는 1년 혹은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서원마다 일정하지 않은데, 대체로 1년이었고 연임도 가능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중임되기도 하였다.⁸⁾

연임되거나 중임된 대표적인 경우는 초대 김종문,⁹⁾ 제2대 권응참,¹⁰⁾ 제20대 권준신,¹¹⁾ 제43대 안옥,¹²⁾ 제58대 광구,¹³⁾ 제144대 황수억¹⁴⁾ 등을 들 수 있다.

8) 윤희면, 앞의 논문, 56-57.

9) 초대 원장인 김종문(金仲文)은 중종 때 진사로 소수서원을 창건할 때 공이 많았다. 퇴계 이황이 감사를 통하여 조정에 알려 동주첩(洞主帖)을 내리고, 1542년부터 1553년까지 12년간 초대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원의 기틀을 닦았다.

10) 제2대 원장인 권응참(權應參)은 1540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44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수학했으며, 1554년부터 1556년까지 3년간 원장으로 재임하였고, 14년 뒤에 제7대 원장으로 1568-1570년까지 다시 3년간 재임하여 모두 6년간 원장으로 재임하였다

한 해에 원장이 여러 번 바뀐 경우도 있었으니, 가장 많게는 1697년 한 해 동안 원장이 5명이나 부임하였다. 제147대-제151대(이기복-김성제-홍유성-이성명-이기명) 원장이 그 보기이다. 다음 1684년에는 제118대-121대(김우-박시우-박운서, 박시창), 1685년에는 제122대-125대(서숙-이성유-성갑하-이성명) 원장으로 한 해 동안 4명의 원장이 부임하였다. 다음으로 1621년에는 제43대-제45대(안옥-권두남-황유길) 원장, 1653년에는 제80대-제82대(김시직-황유정-황중연) 원장, 1664년에는 제94대-제96대(손희중-황중연-서후중) 원장으로 1년 동안에 원장이 3명이나 부임하였다.

이처럼 원장이나 유사 등 서원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임 중에 부정이 발각되어 벌을 받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장의 직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임 단자를 서원에 제출하였다. 이때 서원 원임이나 유생들의 협의를 거쳐 사임의 가부가 결정되었다. 개인적인 사정은 대개 건강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집안에 흥사나 애사가 있어 복을 입게 되면 서원의 춘추향사를 주관할 수 없어 사의를 표명한다.

-
- 11) 권준신(權俊臣, 1561-?)은 제20대(1601년), 제26대(1605년), 제35대(1614년), 제40대(1618-1619년), 제48대(1623년), 제54대(1627년), 제56대(1629-1631년) 원장으로 7번이나 원장으로 재임하였다
 - 12) 안옥(安瑱, 1581-?)은 순흥인으로 풍기에 거주하였는데, 제43대(1621년), 제46대(1622년), 제51대(1625년), 제59대(1635년), 제67대(1641년) 원장으로서 5번이나 원장직에 올랐다. 그는 제18대(1597-1599년), 제33대(1612년) 원장을 역임한 안응일(安應一)의 아들로서 1608년에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수학하였고, 5년 후인 1613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33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생원시에 합격한 이후 3번, 문과급제 이후 2번 원장을 역임했다.
 - 13) 곽구(郭玖, 1588-?)는 현풍인으로 풍기에 거주하였는데, 제58대(1634년), 제66대(1640년), 제74대(1655년), 제84대(1655년) 원장으로 4번이나 원장으로 재임하였다. 그는 제27대(1606년)와 제34대(1613년) 원장을 역임한 곽륜(郭顛)의 아들이다.
 - 14) 황수억(黃壽嶷, 1666-?)은 창원인으로 순흥에 거주하였는데, 제144대(1696년), 제158대(1701년), 제164대(1704년) 제169대(1708년) 제175대(1713년), 제180대(1717년) 원장으로서 6번이나 원장직에 올랐다.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고 1693년에 문과에 급제한 그는 소수서원에 수학하지는 않았으나, 문과급제 3년 후인 1696년부터 6번에 걸쳐 소수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3.2 원장의 출신배경

3.2.1 거주지

소수서원에 입원하는 학생은 평안도와 함경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입학하였다.¹⁵⁾ 그러면 원장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배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수서원 원장의 거주지를 살펴보았다. 1542년부터 1718년까지 176년 동안 소수서원 원장을 역임한 107명 가운데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69명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원장의 거주지 분석

거주지		인원수(명)		비율(%)	
경(京)		4		5.8	
경북	순흥	12	64	17	92.8
	영천(榮川)	10		14.5	
	풍기	38		55	
	안동	1		1.5	
	예천	2		2.9	
	칠곡	1		1.5	
강원도	춘천	1		1.5	
소계		69명		100(%)	

소수서원의 입원생은 평안도와 함경도 및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입학했으나, 소수서원 원장은 경북 출신이 거주지가 밝혀진 69명의 원장 가운데 64명으로 93%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그 가운데에서도 풍기, 순흥, 영천(榮川) 즉 지금의 영주시 출신이 60명으로 69명의 원장 가운데 87%에 달한다. 그리고 서울과 춘천에 거주하는 4명도 이곳 영주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다. 소수서원 입원생 735명 가운데 이 세 지역 출신은 304명으로 41%를 차지하는

15) 송정숙, 앞의 논문, 79.

것과 비교할 때 1543년부터 1696년까지의 소수서원 입원생 735명 가운데 경북 출신이 610명에 달하여 83%에 해당한다. 경북 출신자의 학생의 비율과 원장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풍기, 순흥, 영천 출신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원장의 비율이 학생의 배가 넘는다. 이 사실은 소수서원이 인근의 풍기, 순흥, 영천(榮川) 즉 현재의 영주 사림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소수서원 입학생의 분포는 전국적이지만 소수서원 원장의 분포는 경북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현재의 영주 출신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즉 16·17세기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운영 주체는 서원 소재지 인근 지역인 풍기, 순흥, 영천 즉 현재의 영주 지방 사림이라고 하겠다.

소수서원의 초대 원장은 김중문이 맡았는데, 주세붕은 그에 대하여 “서원의 일을 주관하는 이가 만일 먼 곳에 산다면 아무리 지극한 정성이 있어도 형편상 일정하게 살필 수 없다. 항상 돌보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황폐함에 이를 것이니, 5리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 내가 처음 옛 순흥부의 김중문이라는 한 선비에게 문성공 사당의 일을 관장하게 했었는데, 그의 집이 매우 가까운 데다 그가 마음씀을 매우 오로지 하여 문집을 간행하고 묘원을 여는 일이 실로 그의 힘에 바탕하였고, 제사를 맡고 어진 이를 예우함에 이르러서도 또한 끝과 처음이 한결같이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오래도록 묘원을 맡게 한다면 반드시 중간에 폐하지는 않을 것이다” 16)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소수서원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주세붕이 5리 이내에 사는 순흥의 김중문에게 원장을 맡게 하였던 전통이 이어져 소수서원 원장은 대부분 서원 인근의 풍기, 순흥, 영천(榮川)에 거주하는 자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2 성씨 · 관향

소수서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혹은 어느 성씨나 원장에 선임

16) 周世鵬, “죽계지 잡록후(竹溪志 雜錄後)”, 『國譯 竹溪志』, 영주시, 2002, 205.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원은 양반사족을 위한 교육기관이고 원장은 사림의 영수로 대체로 고을의 유림대표였으므로, 명망있는 양반사족이어야 원장에 선임될 수 있었다. 그러면 16·17세기에 소수서원 원장을 역임한 107명이 어느 성씨이며, 어느 집안 출신인지 파악하기 위해 역대 원장의 성씨와 관향을 조사하였다. 107명의 원장 가운데 관향을 확인할 수 없었던 11명을 제외하고 96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성씨와 관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¹⁷⁾

<표 3> 원장의 성씨·관향 분석

성씨	관향(본관)	인원수(명)	비율(%)	비 고
郭(6)	현풍	6	5.7	<郭嶽-郭玖>, <郭山+晉-郭玆>, 郭再甄, 郭再周
權(7)	안동	6	5.7	權斗南, 權應參, 權以燦, 權俊臣, 權協, 權黠
	관향미상	1	0.9	權正基
琴(1)	봉화	1	0.9	琴旆
金(11)	예안	1	0.9	金隅
	의성	6	5.6	金仲文, 金眉壽, 金是直, 金潤河, 金振河, 金聖濟
	함창	2	1.9	<金九鼎-金慶遠>
	현풍	1	0.9	金天祥
	강릉	1	0.9	金時進
南(5)	영양	2	1.9	南致亨, 南駿慶
	의령	1	0.9	南煥
	관향미상	2	1.9	南忠良,
閔(2)	영천(榮川)	2	1.9	閔善元-(민응기)-閔興業
朴(13)	나주	1	0.93	朴承倫
	무안	9	8.4	朴施雨, 朴施昌, <朴施春=朴施夏=朴施秋>, 朴震極, 朴施益, 朴齊顏, <(朴施春)-朴天球>
	함양	3	2.8	<朴守緒- 朴珠> 朴瑨
徐(8)	대구	4	3.7	<徐亮-徐後從=徐後行-徐聖耆>
	화원	2	1.9	<徐琬-徐命耆>
	관향미상	2	1.9	徐琫, 徐後得
成(2)	창녕	2	1.9	<成甲夏=成大夏(4촌)>
孫(2)	경주	2	1.9	<孫會宗-孫厚麟>

17) - :父子관계, = : 형제관계, () : 원장이 아님

安(11)	순흥	10	9.3	安世亨, <安應--安頊>, 安重夏, 安弘靖 <安世成, -安晚珪=安晚瑜>, 安悟, 安應箕
	창원	1	0.9	安駒
柳(1)	진주	1	0.9	柳以觀
李(9)	광주	1	0.9	李基命
	우계	4	3.7	李基定, <李聖命(생부), 李聖俞(부)-李徵道>
	진의	1	0.9	李禔
	관향미상	3	2.8	李基福(인천?), 李基泰(연안?), 李火+克
秦(1)	풍기	1	0.9	秦益亨
韓(2)	청주	1	0.9	韓山斗
	관향미상	1	0.9	韓明彦
許(1)	양천	1	0.9	許身稷
洪(4)	남양	4	3.7	<洪凭=洪允>, <(洪凭)-洪游範>, <(洪允)-洪游聖>
黃(22)	창원	15	14.0	黃德圭, 黃得謙, <黃有吉=黃有詹>, 黃益清, <黃昌達=黃昌述>, 黃訥, 黃秀奎, 黃壽崑, 黃以久, 黃有纘, 黃有淨, 黃立震, 黃世煥,
	평해	5	4.7	<黃怡-黃尙訥=黃尙謙=(黃尙訥)-黃中衍>, 黃秀良,
	관향미상	2	1.9	黃雲瑞, 黃之煥
총계		107	100	

위 표에서 보듯이 소수서원 원장을 배출한 성씨는 18개이다. 가장 많은 성씨는 황씨가 22명의 원장을 배출하였고, 다음은 박씨로서 13명을 배출하였고, 안씨와 김씨가 각 11명을 배출하였다. 배출 순서로 보면 황(18명) - 박(13명) - 안·김(11명) - 이(9명) - 서(8명) - 권(6명) - 곽(6명) - 남(5명) - 홍(4명) - 민·성·손·한(각 2명) - 금·류·진·허(각 1명)의 순이다.

이로 볼 때 소수서원 운영에 영향을 많이 미친 성씨는 黃·朴·安·金·李·徐 등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성씨라도 모두가 서원 원장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향과 거주지를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원장을 배출한 성씨는 풍기 거주의 창원 황씨로서 15명의 원장을 배출하였다. 다음은 순흥 거주의 순흥 안씨로서 10명의 원장을 배출하였다. 그 다음은 영천(榮川), 풍기 거주의 무안 박씨가 9명, 풍기 거주의 의성 김씨와 현풍 곽씨, 풍기·영천·예천 거주의 안동 권씨가 각 6명의 원장을 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풍기 거주의 평해 황씨가 5명, 순흥·풍기 거주의 대구 서씨와 순흥 거주의 우계 이씨, 풍기

거주의 남양 홍씨가 각 4명의 원장을 배출하였다. 풍기 거주의 함양 박씨가 3명의 원장을 배출하였으며, 영양 남씨, 풍기 거주의 함창 김씨, 영천(榮川) 거주의 영천 민씨, 순흥 거주의 화원 서씨, 순흥 거주의 창녕 성씨, 영천(榮川) 거주의 경주 손씨가 각 2명의 원장을 배출하였고, 그 외 봉화 금씨, 강릉 김씨, 의령 남씨, 영천(榮川) 거주의 예안 김씨, 풍기 거주의 현풍 김씨, 영천(榮川) 거주의 나주 박씨, 풍기 거주의 창원 안씨, 순흥 거주의 전주 류씨, 칠곡 거주의 광주(廣州) 이씨, 풍기 거주의 전의 이씨, 풍기 거주의 풍기 진씨, 풍기 거주의 청주 한씨, 풍기 거주의 양천 허씨가 각 1명의 원장을 배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순흥, 풍기, 영천(榮川) 거주의 창원 황씨, 무안 박씨, 순흥 안씨, 현풍곽씨, 안동 권씨, 의성 김씨, 평해 황씨, 우계 이씨, 남양 홍씨가 소수서원의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의성김씨 김경인(金景仁, 僉知公派)의 22세손으로 제80대(1653), 제89대(1659), 제116대(1683) 원장을 역임한 김시직(金是直)은 김추(金鍾)의 3남이고 昌原人 황이구(黃以久)의 사위인데, 황이구는 68대(1642) 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제96대(1664), 제106대(1674) 원장을 역임한 서후종(徐後從)은 김추의 사위이다.¹⁸⁾ 이로써 김시직과 장인 황이구, 매제 서후종이 모두 소수서원 원장을 역임했다.

남양홍씨 홍윤(洪允)은 참의공파 17세손으로 제101대(1669) 원장을 역임했고, 그의 아우 홍빙(洪凭)은 제126대(1686) 원장을 역임하였다. 홍윤의 맏아들 홍유성(洪游聖)은 제145대(1696), 제149대(1697), 제160대(1702), 제170대(1709) 원장을 역임했으며, 조카 즉 홍빙의 아들 홍유범(洪游範)은 제153대(1699) 원장을 역임하여 형제간에, 사촌간에 4명의 원장을 배출했음을 알 수 있다.¹⁹⁾

영양 남씨인 남준경(南駿慶)은 제73대(1647), 제77대(1650), 제86대(1657) 원장을 역임했는데 그의 외조부가 제2대(1554-1556), 제3대(1568-1570) 원장을 역임한 권응참(權應參)이다. 조손(祖孫)간에 원장을 역임했다.

18) 「義城金氏大同譜」권4, 서울: 義城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92, 1249-1251.

19) 「南陽洪氏世譜」권2, 서울: 南陽洪氏中央花樹會, 1991, 140-144.

3.3 원장의 이력

3.3.1 소수서원 출신

소수서원 인사록 제1권에 기재되어 있는 소수서원 원장 107명 가운데 소수서원에서 수학한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소수서원 인사록 예의 등재 여부를 조사·분석하였다. 「소수서원 인사록」 제1권은 1542-1718년까지 재임하였던 원장의 명부이다. 그런데 소수서원 입원생의 명부인 「소수서원 입원록」을 보면, 제1권은 1543-1696년, 제2권은 1790-1888년까지로 1697년-1789년의 92년간의 입원 기록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대상인 「소수서원 인사록」 제1권에 기록된 원장 가운데, 「소수서원 입원록」에 기록된 1696년까지를 보면, 146명의 원장이 부임하였고, 중임을 제외하면 90명의 원장이 부임하였다. 「소수서원 인사록」에 기재된 1718년까지는 181명이 부임하였고 중임을 제외하면 107명이 부임하였다. 원장의 소수서원 출신 비율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원장의 소수서원 출신 비율

	1542 - 1696년		1542 - 1718년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소수서원 출신	51	57	52	49
그외	39	43	55	51
총계	90(명)	100(%)	107(명)	100(%)

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소수서원 입원록」을 보면, 1655년부터 1696년까지 40여년 동안 입원생이 5명뿐임을 감안하면, 1684년의 제118대 원장부터 1718년의 181대 원장까지 동안은 1682년에 원장을 했던 서숙이 122대(1685년) 원장을 역임했던 것을 제외하면 166대(1706년) 원장인 황세후만이 소수서원 출신이다. 즉 이 기간은 소수서원 출신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1697년 이후는 소수서원 입원록이 누락되어 소수서원 입원 여부를 파악할 길이 없다.

그리하여 연도별 소수서원 원장의 소수서원 출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도별 원장의 소수서원 출신 비율

연도	소수서원 원장					소수서원 출신 원장	비소수서원 출신 원장	소수서원 입원생 수
	인원수	소수서원 출신		비소수서원 출신				
		인원수	%	인원수	%			
1542-1549	1	0	0	1	100	-	김중문	85
1550-1559	2	2	100	0	0	권응참, 안구	-	119
1560-1569	4	4	100	0	100	민시원, 황득겸, 안응기, 권응참	-	99
1570-1579	4	3	75	1	25	이계, 황득겸, 황수량	황인	69
1580-1589	3	3	100	0	10	박승륜, 남충량, 김천상	-	77
1590-1599	4	4	100	0	0	남치형, 김천상, 황지환, 안응일	-	24
1600-1609	12	12	100	0	0	민홍업, 권준신, 안오, 황 수규, 한산두, 황이, 권협, 권준신, 락물, 권협, 락진, 권협	-	61
1610-1619	10	10	100	0	0	안오, 김구정, 안응일, 락 물, 권준신, 락진, 한산두, 서량, 황상눌, 권준신	-	78
1620-1629	16	13	81	3	19	황상눌, 안옥, 권두남, 안 옥, 권준신, 권두남, 황유 청, 안옥, 박수서, 서량, 권준신, 락현, 권준신	박진, 황유길, 박진	61
1630-1639	9	7	78	2	22	진익청, 락구, 안옥, 허신 직, 황익청, 락현, 김경원	황상겸, 남벌	40
1640-1649	11	8	73	3	27	락구, 안옥, 황이구, 김경 원, 안홍정, 황유찬, 락구, 안홍정	서후행, 남준경, 황입진	12
1650-1659	13	9	69	4	31	황유찬, 서후득, 김시직, 황중연, 락구, 황중연, 안 세형, 황유찬, 김시직	남준경, 황유경, 박래, 남준경	5
1660-1669	12	9	75	3	25	권이찬, 안홍정, 손희중, 황중연, 서후중, 락계건, 권협, 황중연, 락계주	서후행, 안세성, 홍윤	0

1670-1679	10	6	60	4	40	김진하, 권이찬, 김윤하, 서후중, 김진하, 서숙	홍윤, 안만유, 권정기, 박시춘	4
1680-1689	22	5	23	17	77	곽재주, 서숙, 김시직, 서숙, 서숙	안만규, 한명언, 김우, 박시우, 황운서, 박시창, 이성유, 성갑하, 이성명, 홍병, 박시하, 이극, 이성명, 박시익, 서완, 김미수, 이극,	0
1690-1699	22	0	0	22	100	-	김시진, 황창술, 박시익, 황창달, 김성제, 박시창, 손후린, 황장달, 금성, 김미수, 황수익, 홍유성, 서완, 이기복, 김성제, 홍유성, 이성명, 이기명, 박제안, 홍유범, 박진극, 이기복	1
1700-1709	15	1	7%	14	93%	황세후	박제안, 이기명, 황수익, 이기복, 홍유성, 박시춘, 성대하, 서성구, 황수익, 서명구, 성대하, 박진구, 황수익, 홍유성	-
1710-1718	11	0	0%	11	100%	-	이징도, 이기정, 유이관, 황덕규, 황수익, 박진극, 이기태, 안중하, 이징도, 황수익, 유이관	
계	181	96	53%	85	47%			

소수서원 설립기의 초대(1542-1553) 원장인 김종문과 제11대(1579-1583) 원장인 황인을 제외하고는 1619년까지 100% 소수서원 출신이 원장을 역임하였다. 1620년~1679년까지 50년 간에는 각 10년당 2~4명이 비소수서원 출신이 원장을 맡았다. 그러다가 1680년대에 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비소수서원 출신이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는 1650년대 들어서 소수서원 입원생이 현격히 줄어들고 1660년과 1680년대에는 입학생이 전무하다. 즉 1650년에서 입원록에 기재되어 있는 1696년까지의 46년간의 입원생이 10명에 불과하므로 서원 경영에 입원생들의 영향력은 점차 미미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690년대와 1710년대는 원장의 100%가 비소수서원 출신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차는 있지만 서원 입원은 20대에 주로 하고 원장 부임은 주로 40~50대에 한다.

1543년부터 1696년까지의 소수서원 입원생 가운데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

한 학생이 57명임을 감안할 때²⁰⁾, 소수서원 원장 가운데 퇴계 문하에서 수학한 사람이 제법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하여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에 이름이 등재된 소수서원 원장은 한 명도 없었다. 소수서원 입원생 가운데 퇴계 문하에서 수학한 학생의 비율이 7.8%임을 볼 때,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는 정말 뜻밖이었다. 아마 소수서원의 발전에만 전념하라는 뜻에서 소수서원과 우열을 겨루는 도산서원 입원생은 원장에서 배제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²¹⁾

3.3.2 과거사항

소수서원 인사록 에 명기된 107명 원장의 과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만, 누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생원진사시와 문과 합격여부를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에서 확인하여 보충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원장의 과거사항 분석

		소수서원 원장		소수서원 입원생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생원 진사시	급제	47	43.9	235	32.0
	불합격	60	56.1	500	68.0
	소계	107	100	735	100
문과	급제	13	12.1	98	13.3
	불합격	94	87.9	637	86.7
	소계	107	100	735	100

20) 송정숙, 앞의 논문, 93.

21)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궁리하다가 「소수서원 입원록」을 사진촬영하기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을 방문했다가 장관각을 둘러보며,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안동군 도산면에 소개한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경북 일대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판을 수집하고 있다. 10만장 수집을 목표로 현재 6만장 이상을 수집하였는데, 영주에서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국학진흥원 A 연구원과의 면담,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6. 9.>

107명의 원장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는 47명이고, 문과합격자는 13명이다. 생원진사시와 문과를 동시에 합격한 사람은 10명이다. 이들의 중복을 제외하면 원장으로서 사마시나 문과급제자는 50명이 된다.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고 유학(幼學)으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제42대(1620), 제47대(1622) 원장을 역임한 박진, 제171대(1710-1711), 제179대(1716) 원장을 역임한 이징도, 제144대, 158대, 164대, 169대, 175대, 180대 원장을 역임한 황수익의 세 명이다. 소수서원 입원생과 비교할 때, 원장의 생원진사시 합격률은 10% 가량 높으나 문과급제율은 1% 가량 낮다. 57명은 소과나 대과에 급제 아니하고 유학(幼學)으로 원장을 역임했음을 알 수 있다. 후대로 갈수록 급제율은 낮아진다. 이 비율은 소수서원 입원생의 비율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과에 합격하여 정계에 입문하면 고향의 사립학교인 서원의 운영에 관여할 여력이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서원의 원장을 역임하려면 입원생 가운데서도 출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한 잣대로 생원진사시와 문과의 급제 연령을 조사·분석하였다. 소수서원 원장 107명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는 47명인데 과거 급제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34명이다. 그리고 문제 급제자는 14명인데 급제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13명이다.

그리고 원장에는 대개 몇 살 때 부임했는지 부임연령을 조사하였다. 원장 181명 가운데 생년(生年)을 확인할 수 있는 85명을 기준으로 할 때의 부임연령을 조사하였고, 중임을 제외하고 첫 부임할 때의 나이가 얼마인지, 107명 가운데 생년이 확인 가능한 43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원장의 과거 급제연령과 부임 연령 분석

나이 (세)	생원·진사시 합격 연령			문과 급제 연령			원장 부임 연령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명	34명 기준	47명 기준	명	13명 기준	14명 기준	명	43명 기준	107명 기준	명	85명 기준	181명 기준		
15-19	1	2.9	2.1	-	-	-	-	-	-	-	-	-	-	
20-24	3	8.8	6.4	-	-	-	-	-	-	-	-	-	-	
25-29	6	17.6	12.8	1	7.7	7.1	-	-	-	-	-	-	-	
30-34	11	32.4	23.4	3	23.1	21.4	2	4.7	1.9	2	2.4	1.1		
35-39	4	11.8	8.5	4	30.8	28.6	2	4.7	1.9	4	4.7	2.2		
40-44	4	11.8	8.5	2	15.4	14.3	7	16.3	6.5	13	15.3	7.2		
45-49	3	8.8	6.4	-	-	-	12	27.9	11.2	14	16.5	7.7		
50-54	1	2.9	2.1	1	7.7	7.1	7	16.3	6.5	20	23.5	11.0		
55-59	1	2.9	2.1	1	7.7	7.1	5	11.6	4.7	13	15.3	7.2		
60-64	-	-	-	1	7.7	7.1	7	16.3	6.5	13	15.3	7.2		
65-69	-	-	-	-	-	-	1	2.3	0.9	5	5.9	2.8		
70-74	-	-	-	-	-	-	-	-	-	-	-	-		
75-79	-	-	-	-	-	-	-	-	-	1	1.2	0.6		
미상	13		27.7	1		7.1	64		59.8	96		53.0		
소계	47명	100%	100%	14명	100%	100%	107명	100%	100%	181명	100%	100%		

원장의 생원진사시 급제연령을 보면 30-34세가 34명중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5-29세로 6명이고, 35-39세와 40-44세가 4명, 20-24세와 45-49세가 3명의 순이다.

문과 급제연령은 35-39세가 4명, 30-34세가 3명, 40-44세가 2명의 순이다.

이로 볼 때 원장의 사마시 합격연령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이 많으며 문과 급제연령은 30대 전반부터 40대 초반이 많다.

원장의 부임연령은 181명 가운데 생년 확인이 가능한 85명을 볼 때 50대 전반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후반이 14명, 40대 전반, 50대 후반, 60대 전반이 각 13명이다. 즉, 40대에서 60대 전반까지가 73명으로 86%에 이른다.

그런데 중임을 제외하고 초임 부임연령을 파악하기 위해 107명 가운데 생년 확인이 가능한 43명을 기준으로 볼 때 40대 후반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전반과 50대 전반, 60대 전반이 각 7명이고, 다음으로 50대 후반이 5명이다. 가장 젊은 나이에 사림의 영수라 할 소수서원의 원장으로 부임한 인물은 제144대(1696) 원장인 황수억으로 그는 30살에 원장에 부임하여 51살의 제180대(1717) 원장을 끝으로 전부 6차례나 원장직에 올랐다.

가장 많은 나이로 원장직을 수행한 인물은 김시직(1607~?)으로 그는 46살에 제80대(1653), 52살에 제89대(1659), 76살에 제116대(1683) 원장직에 부임했다. 40대에 원장에 부임하여 60대 혹은 70대까지 원장을 지낸 인물이 있음을 보면 조선조에도 이즈음 못지않게 활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원장의 명단을 기록한 명부인 「소수서원 임사록」 제1권을 분석하여 소수서원 원장의 평균 재임기간과 그 추이, 거주지와 성씨·관향을 통해 본 원장의 출신배경, 원장의 소수서원 수학 비율과 생원진사사와 문과 급제 비율 등을 소수서원 입원생과 비교·분석하여 소수서원 원장의 특성과 시대별 추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1) 소수서원 원장의 재임기간을 보면, 1542년부터 1599년까지는 초대 원장 김종문을 제외하면 원장이 평균 2~3년간씩 재임하였으나, 1600년부터 1679년까지와 1700년 이후는 1년 내외(8개월~13개월) 재임하였고, 1680년~1699년까지는 평균 5개월 정도 재임하였다. 서원에 입원생이 많은 때에는 원장의 재임기간이 길었고, 학생이 거의 없을 때에는 재임기간이 짧았다. 즉 서원이 교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때에는 서원 운영이 안정되어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파악된다.

2) 소수서원 원장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경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중에서도 풍기·순흥·영천(榮川) 즉 현재의 영주 출신이 87%를 차지함은 소수서원의 운영을 주도한 세력이 서원 인근의 영주 사립임을 입증한다.

3) 소수서원 원장의 성씨와 관향을 분석한 결과, 소수서원 원장을 배출한 성씨는 18개로 황 - 박 - 안 · 김의 순이다. 관향을 보면 창원황씨가 원장을 15명을 배출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순흥안씨(10명), 무안박씨(9명)의 순이다.

4) 원장의 소수서원 출신 비율을 보니, 전체 107명 가운데 52명이 소수서원 출신으로 49%에 해당한다. 예상 밖으로 소수서원 출신 비율이 적어 연도별 소수서원 원장의 비율을 살펴보니, 1620년대부터 소수서원 출신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1680년대부터는 비소수서원 출신이 전적으로 서원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650년대부터 1696년까지 47년 동안 소수서원 입원생이 9명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서원의 교학기능 쇠퇴와 관련이 깊다.

5) 원장의 과거사향을 분석한 결과 원장의 생원진사시 합격률은 44%, 문과 급제율은 12%로서 소수서원 입원생과 비교할 때 생원진사시 합격률은 12% 높았지만 문과 급제율은 1% 낮았다. 물론 사마시와 문과 급제여부로 학문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를 통해 볼 때 원장의 선임기준은 적어도 학문적 능력순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이는 이즈음의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선임이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6) 소수서원 원장 가운데 퇴계 문하에서 수학여부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1명도 없었다. 소수서원 입원생 가운데는 이황 문하에서 수학한 학생이 735명 중 57명이었는데, 원장은 1명도 없다는 사실은 소수서원만의 독자성을 간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연구결과로 조선조 서원 원장의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개별 서원별로 이런 연구가 축적된다면 조선조 서원의 인적 구성 가운데 한 요소인 서원 원장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
「소수서원 임사록(紹修書院 任事錄)」.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
南權熙. 紹修書院 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紹修書院 所藏資料 調査報告書 3) .
榮州: 榮州市 · 紹修書院, 1998.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 16 · 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書誌
學會)」. 제34집(2006. 9).
宋志香 編著. 「榮州榮豐鄉土誌」 上下. 서울: 驪江出版社, 1987.
尹熙勉. “朝鮮時代 書院 院任 研究.” 역사교육(역사교육연구회) . 제54집(1993.
12).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周世鵬. 竹溪志 . 榮州市 譯. 「國譯 竹溪志」. 榮州: 榮州市, 2002.
「南陽洪氏世譜 권2, 서울: 南陽洪氏中央花樹會, 1991.
「義城金氏大同譜」권4, 서울: 義城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92.
「영주향교지(榮州鄉校誌)」.
「사마방목(司馬榜目)」. <<http://gate.dbmedia.co.kr/pusan/>>.
「조선문과방목(朝鮮文科榜目)」. <<http://gate.dbmedia.co.kr/pusan/>>.
한국족보자료시스템. <<http://jokbo.skku.edu/sung/sungMain.jsp>>.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koreanhistory.or.kr/>>.

